

정치(精緻)하게 설계된(well-targeted) 재정운용으로 민생·경제활력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집행과 세수 부족 대응에 만전

- 민생안정사업 89.9조원 중 70.6조원 집행 (8월말 기준, 집행률 78.6%)
- 경제활력사업 26.5조원 중 18.5조원 집행 (8월말 기준, 집행률 69.7%)
- 김완섭 2차관, 「재정집행 점검회의」 주재

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9.22.(금) 15:30 정부서울청사에서 「재정집행 점검회의」를 주재하여 민생·경제활력 지원사업의 집행현황·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.

* 참석부처: 행안부, 교육부, 복지부, 국토부, 고용부, 국방부, 외교부, 방사청

김 차관은 “정부가 서민·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중점 관리중인 민생안정* 관련사업은 예산현액 89.9조원 중 70.6조원을 집행(8월말 기준, 집행률 78.6%) 하였으며, 경제활력 지원** 사업은 예산현액 26.5조원 중 18.5조원(8월말 기준, 집행률 69.7%)을 집행하는 등 총지출 집행률(65.5%) 대비 양호한 집행실적을 달성중”이라고 언급했다.

*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47.4조원(83.0%), 민생 8.7조원(71.4%), 일자리 11.3조원(74.6%) 등

** 내수활성화 대책 0.7조원(80.5%), 수출지원 1.2조원(70.3%), 사회기반시설(SOC) 16.7조원(69.3%) 등

아울러, “세수부족 등 어려운 집행여건이지만, 앞으로도 민생·경제활력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활용, 해당 사업에 대한 자금 우선배정 등 정치하게 설계된 재정운용(well-targeted)에 역점을 두고 대응하겠다”고 밝혔다.

또한, 세수 감소에 연동하여 줄어드는 지방교부세(금)과 관련해서는 재정안정화 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고, 재정집행을 원활히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*를 제공하여 지역 민생·경제활력 지원사업 등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.

*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추가 한도 부여, 특별교부세(금)·보통교부세(금) 교부

마지막으로, 김 차관은 세수 부족이라는 엄중한 상황속에서 민생·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(행안부·교육부 등)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재정관리국	책임자	과 장	마용재 (044-215-5330)
	재정성과관리과	담당자	사무관	김희준 (first3828@korea.kr)